

6월 민주항쟁 관련인사 초청

87년 이래 2007년까지 한국만큼 큰 업적 가진 나라 없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가 아주 뜻 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가슴 벅차고 아주 긴장이 됐습니다. 6월 항쟁 20주년 됐는데 저는 사실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7년 2월 7일 날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위를 했어요. 최루탄 맞고 잡혀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때쯤 되면 흥분하기도 하는데, 지나고 보면 6월 항쟁의 승기를 잡고 우리 세력이 쪽 흠어졌습니다. 뿔뿔이 흠어지고 정치권도 갈라지고 또 흠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어둡게 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애석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몇몇 사람들이 민주세력의 목적이 뭐냐, 무능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87년 이래에 2007년까지 그 사이

의 역사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만큼 큰 업적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많은 진전, 경제도 빠르게 성장, 개인의 자유 만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빠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경제도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개인의 자유도 만발하고 또 민주주의 측면에서 민주적 사회, 인권 사회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모든 나라들이 실제로 부러워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모델과 이론까지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 특별팀을 만들어야 될 사정입니다. 하도 자문을 구하는 나라들이 많아져서 정부가 너무 바빠졌습니다.

얼마 전 국가 청렴위 같은 경우에도 자문에 다 응할 수 없을 만큼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인력을 늘려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측면에서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 만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특권구조 거의 해체

70년대부터 꾸준히 싸워온 선배님들 덕분에 87년에 독재권력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꽃다운 젊은 청년들이 목숨 바쳐 그렇게 얻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뭔가 새로운 삶을 바라는 분들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으시죠. 그래서 쉬지 않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에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는 확실하게 무너졌

습니다. 거의 해체되었습니다.

언론과 맞서는 것, 특권적 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갈등

지금 저와 언론이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국 사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특권적 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국정원, 오충일 목사님이 가셔서 과거사 조사하고 계십니다마는, 과거처럼 그런 특권의 행사, 특권의 구조, 그런 것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반칙, 부조리, 그런 것이 있는데 법치주의가 상당히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 적어도 권력수준에서는 법치주의가 관철되고 있다는 거죠. 관료조직 사회에서 오랫동안 습관으로 남아있는 부정부패, 관료적 특권 이런 것은 완전히 해소 됐습니다. 아직 지자체에는 그런 것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얼마 못 버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사 정리, 국민의 정부에서 진전 참여정부에서 마무리

그 다음에 과거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 기득권 세력의 청산, 그렇게 보면 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역사의 정밀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사 정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시절부터 시작된 것이 국민의 정부에서 크게 진전됐고, 참여정부에서 종합적인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도 그런대로 바르게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리과정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니까요.

87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소망이 향후 20, 30년 우리사회 주요 의제

이런 수준에서 본다면 일단 87년 길거리에서 우리 국민들, 특히 항쟁지도부들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목표는 일단 거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라든지 또는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슴에 묻어두고 크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묻어둔 그 소망들이라는 것은 아직 까마득하게 멀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것이 지금부터이고 앞으로 20, 30년간 우리사회의 주된 의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 그것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가면서 이후 사회에 커다란 전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선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서로 나누어져서 각기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도 의견차이가 있어서 6월 항쟁 내부에서 반드시 다 환영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만큼 왔다는 것,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가 국민들에게 소리 높여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수준정도로 일단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해 가자. 그것이 20년의 논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만큼 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대를 위해서 오랜 동안 자기희생을 해 오신 많은 지도자들 또 그

시기에 정의의 깃발을 들고 목숨을 내던졌던 우리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땀과 피의 가치가 저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밝은 미래의 희망으로 그렇게 꽃피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뵈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 이렇게 정리해 보자는 제안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매우 마음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고요, 좋은 얘기도 좋고 따갑고 쓴 얘기도 좋습니다. 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이 제게 그렇게 길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임 후 정치할 수는 없으나 편안하게 일생 보낼 생각은 없어

그리고 남은 20년 동안 얘기를 자꾸 하니깐 정치 또 할 거냐 묻는데, 한국의 정서가 대통령제 국가여서 대통령을 마친 사람이 정치를 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마친 사람이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듯이 저 또한 대통령 한번 했다고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제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성공의 얘기도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또 열린우리당은 우리당대로 또 민주노동당은 노동당대로 각기 자기 구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렇게 가는데, 멀리 뒤에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보탬 생각입니다.

20년 승부를 한번 해 봅시다. 그때 가서 떳떳해야 합니다. 아직도 역사를 이렇게 가로막고 되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20년의 승부를 경쟁자로서 걸어봅시다. 앞으로 그런 자세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